



코로나19가 중국의 각 노동계층에 미친 영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중국

박석진 (중국 칭화대학교 역사학 박사과정)

■ 머리말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2020년 주요 경제지표를 해석한 기사가 최근 발표됐다.¹⁾ 이 기사는 2020년 중국 경제가 총량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로 한 단계 상승했으며 강력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2020년 중국 GDP는 101조 5,986억 위안(한화 약 1경 7,473조 원)을 기록하며²⁾ 처음으로 100조 위안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각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1분기 -6.8%에서 2분기 3.2%, 3분기 4.9%, 4분기 6.5%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각 산업이 질서 있게 회복되고 있으며 정보화 산업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 숙박업, 요식업, 임대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16.9%를 보이며 금융업과 함께 경제회복의 주춧돌이 되고 있

- 1) 中國經濟網(2021.1.19), 「經濟持續穩定恢復 綜合國力不斷增強——國家統計局相關負責人解讀2020年主要經濟數據(上)」, http://www.ce.cn/xwzx/gnsz/gdxw/202101/19/t20210119_36236005.shtml(최종검색일: 2021.1.30); 中國經濟網(2021.1.20), 「國家統計局相關負責人解讀2020年主要經濟數據(下): 基本民生保障有力 制度優勢充分展現」, http://www.ce.cn/cysc/newmain/yc/jsxw/202101/20/t20210120_36240241.shtml(최종검색일: 2021.1.30)
- 2) 騰訊網(2021.1.28), 「全球經濟“成績單”: 英國陷300年最大衰退, 中國GDP20年翻10倍」, <https://new.qq.com/omn/20210127/20210127A0DKU000.html>(최종검색일: 2021.1.30)

다. 2020년 4분기에는 전 산업에서 부가가치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셋째,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 역시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투자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면서 2020년에는 자본형성 총액이 GDP 성장을 2.2% 높였다. 반면 소비지출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아 2020년 소비지출이 GDP를 0.5% 낮추는 작용을 했다. 하지만 분기별 소비지출은 각각 -4.3%, -2.3%, 1.4%, 2.6%로 점차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 새로운 산업의 주도 작용이 강화되었고 신경제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2020년 규모이상 공업기업³⁾ 중 첨단기술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전년대비 7.1% 증가하여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 평균 증가율인 4.3%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물 상품 온라인 상거래도 2019년 대비 14.8% 성장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2020년 고용상황도 상당히 개선되었고 예상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전국 도시조사실업률⁴⁾이 꾸준히 하락했고 고용상황이 점차 개선되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월 전국 도시조사실업률은 6.2%까지 상승했지만 경제가 점차 정상화되면서 12월에는 5.2%로 떨어져 전년 동기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둘째, 농민공의 고용압력이 점차 완화되었고 고등교육 졸업생의 취업이 대체로 안정되었다. 2020년 2월 말 농민공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5,400만 명 줄어들고 3월에는 도시에 있는 농민공의 실업률이 6.7%까지 올라가면서 상황이 매우 심각했지만, 연말이 되어서는 농민공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97.3%까지 회복되었고 12월 농민공 실업률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고등교육 졸업생(주로 대학 졸업생)의 경우, 2020년 7월 20~24세 고등교육 졸업생 실업률이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했다. 하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고등교육 졸업생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결과 12월에는 이들의 실업률이 7월 대비 7.2% 하락해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셋째, 취업 우선 정책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예상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기업의 부담을 대규모로 감소시키고 유연고용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며 직업기술훈련을 대규모로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취업 정책을 전개한 결과, 전국의 연평균 도시조사실업률이 5.6%로 예상 목표인 6%보다 낮게 조사됐다. 그

3) 중국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2천만 위안(약 34억 원) 이상인 공업기업을 '규모이상 공업기업'으로 규정한다. 공업에는 제조업과 광공업이 포함된다.

4) 편집자주: 도시조사실업률은 도시 전체 상주인구를 대상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적용하여 표본조사한 실업률이다.

리고 2020년 신규 도시취업인구도 1,186만 명으로 집계돼 예상 목표인 900만 명을 상회했다.

이와 같이 국가 기관에서 총괄한 2020년 경제 및 고용 지표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종합적인 통계 수치가 담지 못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상황은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힘들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농민공, 여성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각 노동계층이 코로나19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볼 것이다.

■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농민공 집단

2020년 6월에 발표된 한 기사를 보면, 중국농촌발전연구원 국제원 천즈강(陳志剛) 원장은 비판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전체 농민공의 약 10%인 2,500만 명 정도가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⁵⁾ 그리고 최근 발표된 또 다른 기사에서는, 국가통계국 통계를 인용하며 2020년 중국 농민공 총수는 대략 2억 8,560만 명으로 전년대비 1.8% 하락한 517만 명 정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⁶⁾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농민공의 대량 실업이 상당히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결국에는 농민공 수의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비율로 보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농민공이 도시에서 실업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다.

장꾸이원(張桂文) 외(2020)는 취업집단별로 봤을 때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집단은 농민공과 대학 졸업생이라고 분석했다.⁷⁾ 그중에서도 농민공의 경우 소득수준과 사회보장도가 낮고 노동시장에서 취약집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많은 농민공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서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은 데다가, 이들의 유동적인 고용특성상 농민공 집단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한 조업 중단과 자가 격리 시기에도 일을 할 수 없었다. 더욱이 조업 재개 과정에서도 생산량이 이전에 비해 감소

5) 界面(2020.6.7), 「浙大教授: 新冠疫情或危及2500萬個農民工就業崗位」, <https://www.jiemian.com/article/4487741.html>(최종검색일: 2021.1.30)

6) 騰訊網(2021.1.18), 「疫情之下, 農民工在2020年減少了517萬人!」, <https://new.qq.com/rain/a/20210118A08MG800>(최종검색일: 2021.1.30)

7) 張桂文, 吳桐: 「新冠肺炎疫情對中國就業的影響研究」, 『中國人口科學』 2020年 3期.

하면서 고용량도 감소해 코로나19로 인한 농민공의 피해는 도시 노동자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농민공이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고 인적 자본이 적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약 2억 9천만 명의 농민공 중, 중·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농민공은 27.7%에 불과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새로운 취업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동자에게 더 많은 인적 자원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많은 농민공이 낮은 교육 수준 등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구(舊)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농민공의 51%가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도소매업, 교통운수업, 숙박업, 요식업, 주민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비중은 74.7%에 달한다. 이는 이후 더욱 가속화될 산업구조조정이 농민공에게 더 큰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기간 농민공의 심리상태를 연구한 루화펑(鲁华鹏) 외(2020)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기간 농민공은 다소 높은 수준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⁸⁾ 코로나19 방역기간 이들의 불안 증상은 19.09%의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일반 의료진이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도시 남성 노동자보다 높은 비율이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기간 농민공의 우울증상은 25.45%로 드러나, 같은 기간 일반 의료진이나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 결혼 여부, 월수입, 연령, 교육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이 농민공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쳤는데, 여성이고 비혼이며 월수입이 낮고 나이가 어릴수록 상대적으로 더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는 농민공의 취업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 「신세대 농민공 생존 상황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시대에는 일자리 안정성이 신세대 농민공의 가장 우선적인 고려 사항으로 드러났다.⁹⁾ 코로나19 이전의 신세대 농민공은 대체로 직장을 자주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단순작업에 그다지 만족하지 않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그리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8) 鲁华鹏 等: 「新冠肺炎疫情期间农民工焦虑与抑郁状况」, 『四川精神卫生』 2020年 33(05).

9) 新華網(2020.7.15), 「後疫情時代 農民工就業觀發生改變」, http://cx.xinhuanet.com/2020-07/15/c_139213187.htm(최종검색일: 2021.1.30)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신세대 농민공 중 60% 정도가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한 직장에 머무를 뿐이었고 두 달 이상 한 직장에 머무르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10일 이내에 한 번씩 직장을 옮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사 응답자 중 40% 이상이 3~5회 직장을 옮겼고 직장을 6~10회 옮긴 경우도 35.4%나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열망이 점점 강렬해진 것이다. 코로나19가 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충격을 주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코로나19는 남성 노동자보다 여성 노동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¹⁰⁾ 여성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 사회적 자원이 가장 적은 사회 기층의 여성 노동자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여성 노동자의 약 70%가 숙박업, 요식업, 도소매업 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노동밀집형 산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다. 그 결과 이 같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여성이 일자리 부족과 실업에 직면하게 되었고, 동시에 조업 중단 후 재개 과정에서 사회적 생산력과 소비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의 일자리 복귀 및 소득 회복 속도도 더뎠다. 또한 사회적 성별 분업의 영향으로 여성은 주로 가정을 돌보는 일을 책임지고 있어서 이와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연 및 비정규 노동이 코로나19의 영향을 특히 크게 받은 것이다.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 2020년에는 격차가 한층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상하이(上海)의 경우, 2015년 이후 상하이시 평균 임금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0년에는 1만 2천 위안(약 207만 원)을 넘었다. 여성이 집중된 산업의 평균 임금은 전체 평균 임금보다 항상 더 낮았는데, 2017년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가 2018년에는 다시 하락하는 등 다소 기복을 보였다. 그마저도

10) 澎湃(2020.10.19), 「疫情下女性就業情況變得更糟糕了嗎?」,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9584732(최종검색일: 2021.1.30)

2020년에는 더 떨어져 8,071위안(약 139만 원)을 기록해 상하이시 평균 임금의 61.34%에 그쳤다.¹¹⁾

성별 임금격차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존재해 온 문제이다. 2020년 3월 중국의 온라인 구인 플랫폼인 보스즈핀(BOSS直聘)에서 발표한 보고서 「2020년 중국 직장 성별 임금 차이 보고」에 따르면, 2019년 중국 도시지역 여성의 평균 임금은 6,995위안(약 120만 원)으로 남성 평균 임금의 81.6%였다.¹²⁾ 성별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직위, 업종, 근속연수가 주요 요인으로 드러났다. 그중에서도 직위는 성별 임금격차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2019년 중국 직장 내 관리자급 여성의 비중은 25.4%로 집계되었다. 이마저도 2018년보다 0.4% 증가한 것이었다. 업종별 관리자급 여성의 비중은 다소 차이가 컸는데, 인적자원 관련 업종의 관리자급 여성 비중은 51.8%로 절반을 넘었고 공공관리(45.2%), 재무(45.0%), 행정(44.9%) 등도 관리자급 여성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반면 투자(18.2%), 생산(6.3%), 기술(6.1%) 등의 업종에서는 관리자급 여성의 비중이 매우 낮았다.

업종별로 나타난 성별 임금격차의 경우 채굴 및 제련, 건축시공, 실내인테리어에서 각각 54.1%, 52.7%, 42.3%로 가장 컸다. 이들 업종에서 남성은 체력적인 이점으로 노동참여율과 승진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통계에 따르면, 의료 및 건강 산업(38.4%)과 기업서비스업(36.3%)뿐만 아니라 제약업(30.1%), 정보보안업(29.0%), 그리고 성별 격차가 가장 작은 업종 중 하나로 통계된 온라인 상거래(27.6%) 등의 업종에서도 성별 임금격차가 작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근속연수도 성별 임금격차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보스즈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년차 노동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9.8%였지만,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져 15년차 이상이 되면 30.4%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근속연수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는 2018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여성 노동자는 임금뿐만 아니라 고용에 있어서도 차별에 직면하고 있었고, 코로나19는 그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조업 중단 이후 한창 조업 재개가

11)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노동브리프』 2020년 11월호 「세계노동소식」 중 중국 소식 참조.

12) 新華網(2020.3.5), 「BOSS直聘: 超四分之一總監級崗位是女性 高薪技術崗位女性比例上升」, http://www.xinhuanet.com/2020-03/05/c_1125668017.htm(최종검색일: 2021.1.30)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2020년 5월경, 노동조합에서는 일자리에 복귀하는 여성 노동자의 권익 보장 문제에 특별히 주목했다.¹³⁾ 일자리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임금 감소나 불합리한 업무 부서 조정 등과 같은 차별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여성 노동자들이 구직 과정에서 당하는 차별 문제도 지적되었다.¹⁴⁾ 많은 여성이 입사 면접에서 “결혼했습니까?”, “몇 살입니까?”, “아이는 낳았습니까?” 등과 같은 질문으로 ‘영혼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차별 행위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 코로나19로 ‘암흑시대’ 경험 후 직장 생활이 변화한 사무직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도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구인회사 지렌자오피(智聯招聘)에서 발표한 보고서 「2020년 사무직 노동자 생활상황 조사 연구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기간 사무직 노동자는 대부분 ‘암흑시대’를 겪었다.¹⁵⁾ 조사대상의 37.34%가 임금 감소를 경험했고, 30.68%는 직간접적으로 감원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27.97%는 임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했고 20.89%는 임금 인상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답자의 10.25%는 다니던 기업이 문을 닫았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성격에 따라 사무직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도 달랐다. 국유기업, 합자기업, 민간기업, 외국계 기업(홍콩, 마카오, 대만계 기업 포함) 중 감원을 경험한 사람은 외국계 기업이 35.74%로 가장 높았고 국유기업이 24.71%로 가장 낮았다. 임금체불은 민간기업이 32.14%로 가장 높았고 외국계 기업이 6.61%로 가장 낮았다. 재직 기업이 파산한 경우도 민간기업이 11.56%로 가장 높았고 국유기업이 5.49%로 가장 낮

13) 中工網(2020.5.27), 「疫情防控常態化下, 女職工平等就業權受到總工會界委員關注——加強返崗就業“三期”女職工權益保障」, <http://acftu.worker.cn/37/202005/27/200527074747282.shtml>(최종검색일: 2021.1.30)

14) 中工網(2020.5.21), 「女性就業歧視“頑疾”怎麼消除? 全國政協委員楊正國支招」, <http://acftu.worker.cn/37/202005/21/200521145334811.shtml>(최종검색일: 2021.1.30)

15) 北國網(2020.6.4), 「2020年自領生活狀況調研報告」, <http://economy.lnd.com.cn/system/2020/06/04/030113636.shtml>(최종검색일: 2021.1.30)

았다. 기업의 규모도 코로나19의 영향에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 감원의 경우,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감원을 경험한 사무직 노동자의 비중이 대체로 커져서 100인 이하 기업의 경우 28.77%로 가장 낮았고 1만인 이상 기업의 경우 34.86%로 가장 높았다. 반면 임금체불은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를 경험한 노동자의 비중이 작아졌다. 100인 이하 기업의 경우 36.1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지만 1만인 이상 기업의 경우 12.94%만이 임금체불을 경험했다. 기업 파산은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를 경험한 노동자의 비중이 작아져 100인 이하 기업의 경우 15.38%, 1만인 이상 기업은 3.13%만이 파산을 경험했다.

업종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문화·체육 교육·공예미술 종사자의 56.42%, 서비스업 종사자의 48.5%, 문화·매체·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의 44.11%가 임금 삭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전직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86.55%는 전직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약 10%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으며, 3.89%만이 현 직장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문화·매체·엔터테인먼트 산업 응답자의 92.40%가 전직 의향을 밝혔고, 금융업의 89.01%, 무역·도소매업·임대업의 86.82%, 부동산·건축업의 86.38%, IT·통신·전자·인터넷산업의 85.91%가 전직 의향을 밝혔다. 전직 의향을 밝힌 응답자 중 교통·운수·물류·창고업이 81.99%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로 상당히 바뀌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조사 응답자의 53.96%가 “리스크가 있으므로 전직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코로나19는 사무직 노동자의 직장 및 일상 생활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직장 생활과 관련해 응답자들은 각각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겠다(52.88%) △실업만은 피하기 위해 노력하겠다(23.75%) △더 이상 승진과 임금 인상을 기대하지 않겠다(19.20%) △상사의 가혹한 요구를 더욱 참고 견디겠다(14.05%) △휴가를 함부로 신청하지 않겠다(10.83%) △더욱 열심히 일하고 앞으로는 초과근로를 거절하지 않겠다(10.35%) △현재의 일을 소중히 여기며 잠시 전직에 대한 생각을 단념하겠다(8.18%)고 응답했다. 직장생활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3.73%에 불과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사무직 노동자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건강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74.94%) △개인 위생에 더 주의하게 됐다(56.11%) △집단적 오락 활동을 피하게 됐다(28.94%) △외출 방식을 바꾸었다(24.07%) △생활필수품을 사 놓기 시작했다(20.49%)고

응답했다.

■ 맺음말

2020년 중국의 통계 수치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 및 고용 상황이 안정적으로 회복되었고 지금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나타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현실을 들여다 보면 긍정적으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통계 수치로는 경제상황이 회복되었을지 몰라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기존의 차별과 격차가 더 악화되었거나 이들의 심리에 깊은 상흔이 남겨진 것으로 보인다. 신세대 농민공과 사무직 노동자의 직장에 대한 태도에서 이러한 변화가 뚜렷이 관찰된다. 코로나19는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그 영향이 모든 계층과 집단에게 동등하지는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19 이후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K자형 회복이 우려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변화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숫자가 가리키는 전체적인 총량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집단의 구체적인 변화에도 세심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KLI**